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청 국정감사가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이 국감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하철도 어려운데 트램 적절인가” 광주시 국감에 쏟아진 우려와 질타

농성역~캠필~송정역 14km 구간
혼용차로 설치 교통법 개정해야
광주시청 “용역통해 타당성 검증”

4년만에 광주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민선 8기 광주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수소 트램(Tram-레일 노면전차)’ 설치 사업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총사업비가 급상승하고, 개통시기도 미뤄진 도시철도 2호선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트램 설치가 적절하냐는 것이다.

특히 광주시가 구상중인 트램 혼용차로(트램차로를 다른 차량과 공동 이용)를 설치하기 위해선 도로교통법 개정 등이 필수적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상적인 사업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광주시에 트램 예산이 1단계 800억원, 2단계 7640억원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타당성 등) 의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1단계 구간 개통 시기는 애초보다 2년 6개월 늦어지고, 2단계는 5년 늦은 2029년이나 가능하다”며 트램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따졌다.

도시철도 2단계 구간 총사업비가 2배로 오르고, 광주재정 여건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수소 트램 설치 자체가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조 의원은 특히 트램을 설치하기 위해선 관련법(도로교통법)개정이 우선이라며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 국회는 2016년 11~12월 이른바 ‘트램 3법’ 중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을 통과시켜 도로에 트램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게 했고, 전차와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는 허용 범위도 완화했으나, 가장 중요한 도로 위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계류 중이다.

도로 위에서 트램 운행에 따른 각종 안전 사항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5년 발의에 이어 2020년에는 김윤덕 의원이 재발의 했으나 아직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트램 혼용차로 이용이 가능토록 돼 있지만 경찰 등에서 도로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이날 “울산, 부산, 대전, 대구 등 트램 사업이 생각보다 문제가 많다”며 “차로 축소로 인한 교통혼잡, 예상보다 불어난 사업비, 타당성 논란이 네 곳 다 발생했다”며 “실수가 없도록 다른 지역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시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구시는 민선 8기 들어 비용 상승과 각종 부작용을 고려해 기존 트램 계획 대신 모노레일로 바꿨고, 부산시도 트램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예

상보다 배 이상 추가되자 고민에 들어갔다. 대전시도 2020년 7400억 원으로 예상됐던 사업비가 최근 1조 4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사업에 임무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년 본예산에 2억원 정도 용역비를 반영해 (타당성 등을) 따져볼 것”이라며 “차와 트램이 함께 다닐 수 없는 현행 제도법이 바뀌지 않고는 설치가 불가능한 만큼 법 개정을 전제로 추진하면서 시민 의견, 타지역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에서 공공교통국 광역교통과 내에 ‘철도 트램정책팀’을 신설하고, 내년 본예산에 트램 관련 용역비 2억원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가 구상중인 트램 사업은 크게 1, 2 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도시철도 1호선 농성역~신세계백화점 및 종합버스터미널-전방-일신방직~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등 2.6km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720억원(전액 시비) 정도이며, 운행시간은 25km/h 기준 6분이다.

2단계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광주역-신안동-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동림-극락강역-월곡-우산-송정역 등 14km구간을 잇는 구상이다. 운행시간은 28분 정도 예상된다. 2단계는 7000억원대의 사업비가 예상되며, 국비 60% 반영 사업으로 진행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의 추억

조르주 루오 시상展

‘작은 숲 I’

조르주 루오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14살 되던 해에 야간에는 파리 장식미술학교를 다니면서, 주간에는 스테인드글라스 견습공으로 일을 했다. 샤프트르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비롯한 여러 성당 복원에 참여했던 경험은 훗날 작품 속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다.

루오의 작품을 보면 투명하고 화려한 색채, 굵고 검은 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스테인드글라스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전남도립미술관에 전시된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작은 숲’은 1949년에 제작된 것으로, 어린 시절 루오가 스테인드글라스에 매료되었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정미라-전남도립미술관 학예사)



‘작은 숲 I’ 1949년, 87 x 62.8 x 1.7cm, 스테인드글라스, 조르주 루오 재단 소장

한국, 유엔 北인권결의안 협의 참여

외교부 “공동제안국 참여 검토”
정부 기조 반영 4년만에 복귀

유럽연합(EU)이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한 주요국과의 협의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고 그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최종적인 입장은 결의안 문안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가치외교로서 인권, 평화, 자유, 번영 등 글로벌 보편적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며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불참 이유에 대해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EU가 매년 10월 초 초안을 작성한 뒤 주요국과 회담, 문안 협의를 하며 11월 초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최종안이 상정돼 채택된다.

결의안은 12월 중하순경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는데, 2016년 이후 투표없이 컨센서스(합의)로 채택돼 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노동자 너무 높은 고용노동부 ▶6면

복스 - ‘컵라면이 익을 동안 읽는 과학’ ▶15면

광주FC 임시성 “내년시즌 기대하세요” ▶18면



광주 순례기 - 남광주시장과 전남대병원 ▶22면

사랑과 감사의 68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영문대학교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Mercedes-Benz Certified

이보다 쉬울 수 없다.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 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온라인샵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존재
- 국내 수입처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 광역시 서구 상당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